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7, pp.231-273
<https://doi.org/10.29212/mh.2023..127.2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제3제국에 대한 군부 내 저항*

이병철 | 홍익대학교 역사교육학과 부교수

- 목 차
1. 서론
 2. 국방군과 나치즘
 3. 군부 저항의 시작
 4. 1944년 7월 20일 저항
 5. 맺음말

초 록 독일 군대는 1933년 히틀러의 정권 장악을 환영했다.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대폭 약화된 독일의 병력이 나치의 재무장정책에 의해 되살아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군대를 나치즘의 대외정책적 팽창의 도구로 삼고자 했다. 1차대전의 패전국 독일 군대가 국방군으로의 개편을 통해 다시 한 번 유럽의 전쟁을 주도할 위험한 실체로 변모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소수의 반대자들이 군대 안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군부의 반대는 처음에는 제3제국 안에서 재편되는 조직 간 세력투쟁의 양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내 히틀러의 전쟁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으로 전개되었다.

2차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군대 안에 정권을 전복함으로써 무모한 전쟁으로부터 독일을 구할 수 있다는 반대자들의 저항운동이 조직화되고 강화되었던 것이다.

그 대대적인 첫 시도로서 군부 안에서의 1938년 '9월 음모'는 히틀러가 전쟁을 기피한 듯이 보였던 기만적 뉘른베르크 협정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2차대전이 인종주의적 절멸전으로 수행됨에 따라 군부 내 반대자들은 도덕적으로 재무장되어 범죄적 정권의 타도와 제3제국과 '다른 독일'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1944년 7월 20일 저항을 시도한다. 이 거사가 히틀러의 암살 미수로 비극적인 종말에 이르렀지만 전후 독일의 새로운 출발에 정신적 기반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방군이 연방군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7월 20일'의 정신은 군사(軍史)적인 연속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 제3제국, 국방군, 나치즘, 저항, 1944년 7월 20일, 슈타우펜베르크, 발퀴레 작전

(원고투고일 : 2023. 4. 1, 심사수정일 : 2023. 5. 18, 게재확정일 : 2023. 6. 5.)

1. 서론

1944년 7월 20일, 히틀러를 암살하고 나치 정권을 전복하려는 저항이 실패로 돌아간 뒤 7월 20일에서 21일로 이어지는 밤에 핵심 주동 인물 5명에 대한 처형이 즉각 집행되었다. 이들 모두 현역 군인이었고, 계급은 대장, 중장, 2명의 대령, 중위였다. 군부의 주도에 의한 거사가 좌초되었고 그 비극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폭발 사건 약 12시간 뒤 7월 21일 01시 직전에 아직 현장에 머물러 있던 히틀러가 ‘총통사령부’(Wolfsschanze)에서 직접 자신의 생존 사실을 확인시키고 ‘암살 미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육성 방송이 전국에 중계되었다.

그는 “공명심에 빠진, 양심 없는, 동시에 바보 같고 불한당 같은 장교들의 아주 작은 도당이 나를 제거하고 동시에 나와 함께 실제적으로 독일 국방군지도부를 이끄는 참모진을 절멸하기 위해 음모를 꾸몄다”고 비난했다.¹⁾ 히틀러가 이 쿠데타의 공모자들을 규정한 “아주 작은 도당”이라는 개념은 곧바로 나치당의 기관지(Völkischer Beobachter)

* 본 연구는 2022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진흥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 히틀러는 총통사령부에 긴급 배치된 동프로이센의 쾨니히스베르크 지방방송(Reichsender Königsberg) 중계차에서 방송연설을 했고 “암살의 충격으로 전율하는 히틀러의 공세적 목소리”가 독일의 모든 방송사를 통해 전국에 퍼져나갔다. 이 육성 녹음과 전문이 ‘100(0) Schlüsseldokumente zur deutschen Geschichte im 20. Jahrhundert’에 게시되어있다. https://www.100dokumente.de/index.html?c=okument_de&dokument=0083_ahr&object=pdf&st=&l=de, pp. 1-2, 6 (검색일: 2023년 4월 1일).

에 의해서도 “아주 작은 일파의 범죄 분자들”로 반복 활용되었다.²⁾ 나치의 선전은 그들이 수적으로 매우 제한된 장교로만 구성된 일당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강조했고, 그것은 통제된 공중 안에서 효력이 있었다. 1944년 7월 20일 저항이 군부 내 배타적인 극소수의 일당에 의한 음모였다는 나치의 각인은 이 사건에 대한 전후시기 독일 공중의 기억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워지지 않았다.

그러나 나치가 주조한 인상과는 다른 실상이 7월 20일의 거사를 즉각 다루었던 당시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이미 나타난다. 1934년에 ‘정치적 범죄행위’를 다루기 위해 설치되어 국가전복과 반역 등의 판결을 전담했던 ‘민족법정’(Volksgesichtshof)의 7월 20일 저항에 대한 첫 공개재판에서 정권이 선전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인물이 여기에 참여했고 이들이 전통적인 프로이센-독일 군부 및 다른 직무에서도 엘리트 출신이라는 것이 표출되면서 언론 보도는 이내 중지되었다.³⁾ 공모자들은 다수의 군인들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계층의 민간인들과 —특히 저항단체였던 크라이자우 서클(Kreisauer Kreis)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게슈타포 내에 즉각 구성된 ‘1944년 7월 20일 특별위원회’에 의해 체포된 인원이 600여 명에 이르렀고 대부분이 처형 및 다른 방식의 죽음으로 희생되었다.⁴⁾ 그 가운데 최고위 장교로서 3명

2) »Völkischer Beobachter« 1944년 7월 22일자. Winfried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Berlin/Boston, 2019), p. 9에서 재인용.

3) Johannes Tuchel, “Die Verfahren vor dem »Volksgesichtshof«,” M. Becker, C. Studt, eds., *Der Umgang des Dritten Reiches mit den Feinden des Regimes* (Berlin, 2010), p. 141.

4) Johannes Tuchel, Julia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 eine Einführung,”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o. 330 (Feb. 2016), p. 61.

의 원수, 19명의 장군, 26명의 대령이 포함된다.⁵⁾ 결코 “아주 작은 도당”이라고 할 수 없었다.

이 논문은 1944년 7월 20일의 저항을 ‘군사’(軍史)적인⁶⁾ 관점에서 살핀다. 무엇보다 그 구성원에서 군인들의 역할이 주도적이었고 공모의 시점이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으며 군대 안에서 그 이전까지 소급하는 배경을 주목해야 한다는 점에서 군대사적 고찰은 이 저항사건의 이해에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7월 20일 저항운동의 형성과정은 군대가 제3제국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으며 나치즘에 대해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 ‘군사’의 의미를 개괄하고, 제3제국 시기의 군대인 ‘국방군’(Wehrmacht)이 구축되는 과정을 나치즘과의 관계에서 알아본다. 3장에서는 나치즘과 특별한 관계를 누렸던 국방군 내에 정권에 대한 이견이 형성되어 저항을 공모하게 되는 경위를 추적한다. 마지막 4장은 1944년 7월 20일의 거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집중한다.

2. 국방군과 나치즘

제3제국에 대한 군부 내 반대의 역사를 독일 군대사의 일부로 이해하려 한다면 ‘군사’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 독일 역사학계에서 고전적 의미로서 ‘군사’(Militärgeschichte)는

5) “Personen des 20. Juli 1944,” Wikipedia, https://de.wikipedia.org/wiki/Personen_des_20._Juli_1944 (검색일: 2023년 4월 1일).

6) 군사(軍史)라는 단어가 군사(軍士), 또는 군사적(軍事的)이라는 개념과 혼동되기 쉬어 강조용 부호를 붙여 ‘군사’로, 때에 따라서는 군대사라는 단어로 표기함.

오늘날 ‘전쟁사’(Kriegsgeschichte)라는 개념에 해당된다. 즉 전쟁 중에 시행된 군사적(軍事的)인 작전의 역사, 그리고 작전이 수립되는 사고 과정이 고찰의 대상이었다. 그것은 군사적 기밀의 한계 아래 군대 자체에 의해 추진되어 의도적으로 일반적인 학문적-역사적 논의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⁷⁾

군대사 서술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계기는 1955년 연방군(Bundeswehr)의 창설에서 마련되었다. 전후 냉전체제가 구축되면서 패전 독일의 재무장이 서방측의 이해에 절실히 필요했고, 그에 따라 창설된 연방군은 독일의 군대를 넘어서 유럽과 서방의 군대로 새로운 정체성을 수립해야 했다. 1957년 ‘군사’ 연구부가 세워지면서 군대사가 일반 역사학의 방법론과 기준에서 수행되기 시작했다. 독일 대학의 역사학은 ‘군사’적 주제에 관계하는 것을 더 오랫동안 머뭇거리왔는데 그것은 연합국에 약탈되었던 2차대전기 국방군 문서의 주요 자료가 1960년대 말에야 독일로 돌아왔기 때문이었다.⁸⁾

그 이후에 ‘군사’의 방법론과 목표에 대한 토론이 본격화되어, 2000년에 여전히 『‘군사’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군대사 서술의 핵심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 2013년에 『이것이 ‘군사’다!』라는 제목의 책이 맞서 출판되는 등 그 과정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제는 근대적으로 “확장된 ‘군사’”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⁹⁾ ‘군사’는 군사적 과정들

7)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p. 3.

8) Astrid M. Eckert, *Kampf um die Akten. Die Westalliierten und die Rückgabe von deutschem Archivgut nach dem Zweiten Weltkrieg* (Stuttgart 2004) 참조.

9) Thomas Kühne, Benjamin Ziemann, eds., *Was ist Militärgeschichte?* (Paderborn, 2000);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ed., *Das ist Militärgeschichte! Probleme - Projekte - Perspektiven* (Paderborn, 2013) 참조.

을 그것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살펴보는 연구다. 2차대전 중에 야기된 독일 군부의 저항이 이러한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 ‘군사’의 일부로 이해하고 서술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하다. 이에 반해 전쟁사로서 고전적 군대사의 관점에서는 군부 저항의 행동이 어떠한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했다. 7월 20일의 전복 시도가 군사적 작전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¹⁰⁾ 7월 20일 저항이 ‘군사’적 관점에서 연구되는 것은 군대사 개념의 정립과 이 거사에 대한 전후 독일 사회의 인식 변화가 맞물리는 최근의 일이다.

제3제국의 ‘군사’적 고찰에서 우선 주목되는 것은 군대가 나치 권력기구의 일부로서 중심적인 위치에서 그 체제의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다. 군대는 마지막 순간까지 히틀러가 주장하는 권력의 중추였다. 동시에 그 체제 전체를 전복하기 위해 일어났던 유일한 저항 행동의 담당자 역할을 한 것도 군대였다. 정치가, 공무원, 외교관과 함께 오래 전부터 암살 및 국가전복을 계획한 공모자들이 군대 안에 형성되고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히틀러를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 나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전쟁을 신속하게 종결하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독일인, 그리고 대부분의 군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경애하는 총통’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군부의 중심에서 국가전복을 위한 그렇게 광범위한 공모와 조직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 제국 수도를 장악하는 그렇게 포괄적인 군부의 기도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감시하는 정권의 눈을 피해 들키지 않고 계획되고 준비될 수 있었는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는 것이 곧 7월 20일의 군부 저항에 대한 ‘군사’적 설명이 될 것이다.

10)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p. 3.

나치 정권에 대한 반대는 정권 장악과 동시에 정치적 반대자들로부터 일어났다. 나치 지배의 지속과 책략이 반대파의 행동을 초래했고, 역으로 반대파의 행동이 나치의 반작용을 야기했다.¹¹⁾ 전쟁 중의 저항도 똑같이 변증법적인 과정으로 발전했다. 저항이 전쟁사건에 영향을 받았고 반대로 저항은 전쟁사건에 영향을 미쳤다. 저항의 공모자들은 그들이 군부 출신이라는 점에서 군대 기구의 일부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군대에 일어난 변화들이 저항적 행동의 기본 조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 중 군인들의 저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군대 안에서의 사건들과 공모자들이 군부에서 사회화하는 과정의 맥락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7월 20일의 공모자들 가운데 연장자들은 황제 통치의 제국(Kaiserreich) 시기에 육군에서 복무했다. 이 거사에서 국가수반으로 내정되었던 전임 육군참모장¹²⁾ 베크(Ludwig Beck) 대장¹³⁾은 1898년, 즉 19세기에 장교로 임관되었다. 거사의 실제적인 책임을 맡았던 세 인물, 올브리히트(Friedrich Olbricht) 준장은 1907년에, 트레스코프(Henning von Tresckow) 준장은 1917년에, 슈타우펜베르크(Claus Schenk Graf von Stauffenberg) 대령은 1926년에 군복무를 시작했다. 이들 모두 국가방위군(Reichswehr)의 군인이었다.¹⁴⁾

11) Martin Broszat, "Zur Sozialgeschichte des deutschen Widerstands," *Vierteljahrshäfte für Zeitgeschichte*, 34 (1986), p. 296.

12) 육군최고사령부(OKH)의 최고지휘관은 육군최고사령관(Oberbefehlshaber des Heeres)이며 육군참모장(Chefs des Generalstabes des Heeres)은 바로 아래에 위치한다.

13) 이 논문에서 언급되는 군인들은 특정 시기에 관련되지 않을 경우 최종 계급으로 표기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해당 시점의 계급으로 표기된다.

14) Winfried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J. Hillmann, P. Lieb, eds., *20. Juli 1944. Neue Forschungen zum Widerstand gegen Hitler* (2019), pp. 27-28.

프로이센-독일의 군국주의에서 군대는 ‘국가 안의 국가’(Staat im Staate)였고, 심지어는 ‘국가 위의 국가’(ein Staat über dem Staat)로까지 인식되었다.¹⁵⁾ 국가에 대해 거리를 두고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한 군대의 특별지위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국가방위군에서도 계속되었다. 1918년 11월 혁명 동안 좌익급진 세력에 대해 육군총사령관 그뢰너(Wilhelm Groener)가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될 에베르트(Friedrich Ebert)와 공동의 행동을 합의한 ‘에베르트-그뢰너 조약’(Ebert-Groener-Pakt)으로 군대는 광범한 내적 자율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가방위군은 바이마르 공화국 동안에 정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인 사안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았다. 국가방위군의 일부가 가담한 1920년의 카프 폭동(Kapp-Putsch)에서 군부는 진압을 거부했고, 1923년 뮌헨에서의 쿠데타 시도(Hitlerputsch) 때에는 육군의 수장이 대통령이 위임한 진압 권한을 반환했다. 전자는 노동자들의 파업시위에 의해, 후자는 소요 수뇌부의 미흡한 준비로 인해 와해되었다. 1932년 가을에는 나치스와 공산주의 및 민주주의 세력 간의 무력적 충돌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에 의해 사주된 전통적-군주제적, 또는 군부독재적 개혁을 위한 복고적 쿠데타를 감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다. 일급비밀의 ‘오트 훈련’(Planspiel Ott) 심의에서 다수의 국가방위군 사령관들이 주민들에 의해 거부되었던 군부 쿠데타-카프 폭동-의 선례를 들어 이에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국가방위군은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최소한으로 축소된 10만 육군으로서는 나치스와 의 대립 및 사민당과 공산당 주도아래 벌어질 총파업에 맞설 능력이 없었다. 제국의 내적 혼란에 병행해서 외적 위협이 야기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되었

15) Volker R. Berghahn, ed., *Militarismus* (Köln, 1975), p. 91.

다.¹⁶⁾

베르사유 체제에 의한 군대의 축소는 다른 한편 국가방위군의 소수 정예화를 가능하게 했다. 육군의 수장으로서 쾨크(Hans von Seeckt)는 ‘대중군대’(Massenheer)가 아니라 소수의 엘리트로 이루어진, 고도로 기계화된 ‘지휘관군대’(Führerheer)로서 국가방위군을 구성하고자 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독자적인 군대로서 여전히 ‘국가 안의 국가’를 의미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사회적으로 격리된 자칭 비정치적인 국가방위군의 형성을 가능하게 했다. 국가방위군은 정치권으로부터 가려져 그 안에서 개방적인 담화가 지속적으로 가능했던 하나의 보호된 소통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군대의 특수성은 나중에 나치 정권 하에서도 게슈타포에 의해 발각되지 않은 채 국가모반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1944년 7월 20일의 국가모반에 참여한 장교들은 수사관들에 의해 나치 세계관에 관심이 없는 전형적인 비정치적인 군인들의 대변자로 지칭되었다. 히틀러에게 보고한 게슈타포의 수사결과 문서(칼텐브루너 보고서, Kaltenbrunner-Berichten)는 “군인들의 이러한 ‘비정치적 태도’의 결과로 장교단의 특정 일부가 나치 제국과 총통에 내적인 의무감을 느끼지 못 한다”고 분석했다.¹⁷⁾

1933년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군제의 재편은 베르사유 조약 파기의 일환으로 감행되었다. 1935년 3월 15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방위군에서 유래한 나치 독일의 군대는 ‘국방군’으로 개칭되었다. 육군, 해군, 공군으로 구성된 국방군은 2차대전 동안 히틀러의 정복정책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로 작동했다. 앞으로의 전쟁을 내다보면서 나치 국가

16)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p. 28.

17) 같은 논문, p. 29.

는 이미 1933년부터 엄청난 군비확장정책을 추진했다. 육군의 상비군이 6년 내에 7배 이상 증가했고, 해군의 상비군은 5배가 증가했다. 1935년에 공군이 창설되었고, 일반징집으로서 병역의무가 재도입되었다. 이렇게 하여 전쟁이 발발했을 때 국방군은 45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¹⁸⁾

1933년 이후 나치즘과 국방군 사이의 특별한 관계는 ‘동맹’(Bündnis 또는 Entente)으로 구축되었다. 이것은 나치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국가적·사회적 구조 획일화의 핵심 부분이었고 군 수뇌부에게는 인상적인 세력증강의 기회를 의미했다. 10만 육군의 병력을 급속히 증가시킨 군비확장은 특히 장교단에게 대대적인 승진의 기회를 제공했다.¹⁹⁾ 독일의 지리적 위치는 군사적으로 언제나 육군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고, 그것은 국방군의 구성에 직접 반영되었다. 1939년 9월, 국방군은 거의 9/10에 해당하는 370만의 병력을 육군에 배치했다. 신설 공군은 1/10이 채 안 되는 40만, 해군은 1/90 정도의 5만 병력으로 편성되었다. 전체 병력은 전쟁이 경과하면서 2배로 상승하여 1943년에 9백만에 이르렀고, 육군은 여전히 상당한 차이를 두고 최대의 국방군 병력을 차지했다.²⁰⁾

히틀러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곧 차례대로 군대조직에 대한 통제를 장악했다. 제국대통령 힌덴부르크(Paul von Hindenburg)가 1934년 8월 2일에 사망하자 즉시 그는 군인들

18) Thomas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https://www.bpb.de/themen/nationalsozialismus-zweiter-weltkrieg/der-zweite-weltkrieg/199406/die-wehrmacht-struktur-entwicklung-einsatz/p.3> (검색일: 2023년 4월 1일).

19) Gerd R.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Motive und Entwicklung der Militäropposition gegen Hitl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54 Jg., Bd. 27 (Jun. 2004), p.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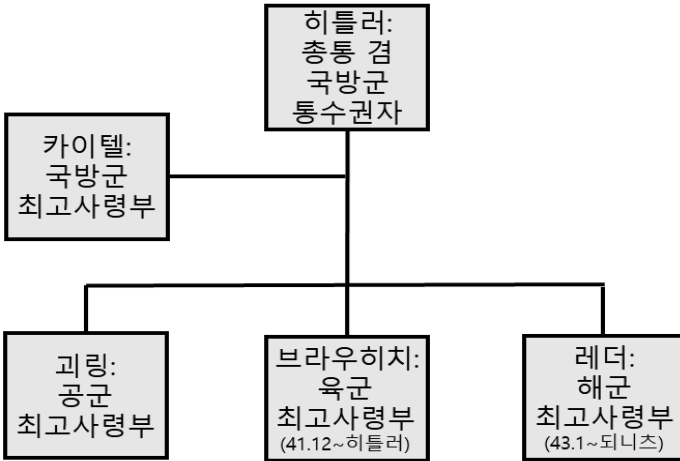
20)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p. 3.

로 하여금 ‘국방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에게 맹세를 하게 했다. ‘총통에 대한 맹세’(Führereid)로서 국방군 군인의 선서문구는 이러했다. “나는 독일 제국과 국민의 총통, 국방군 통수권자인 아돌프 히틀러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용감한 군인으로서 언제든지 이 맹세를 위해 내 목숨을 바칠 것이라는 이 신성한 서약을 신 앞에 맹세한다.”²¹⁾ 이 총통맹세는 1944년 7월 20일 전복의 공모자들을 ‘서약을 위반한 자’로 낙인찍고 ‘서약을 지킨 자’와 구분 짓는 도구로 작용한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종전 후 독일이 연방공화국으로 재건하고 연방군으로 군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군대의 쟁점으로 남아있게 된다.

히틀러의 군사적 통제는 군 지휘부와외의 마찰을 불러일으키지만 결국 그가 군대를 직접 장악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방부가 1935년 전쟁부로 변경되었다가 1938년에 폐지되고 국방군최고사령부(Oberkommando der Wehrmacht, OKW)가 설립된다. 이 과정은 히틀러에 이권을 제기하는 자를 제거하고 충성을 다하는 자로 대체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군부의 장악은 국방군 내 3군 가운데 최고의 위치에 있는 육군을 장악하는 것을 전제했다. 히틀러는 음모를 통해 육군최고사령부(Oberkommando des Heeres, OKH)의 수장을 약한 후임자로 대체했고, 전쟁 중에 국방군최고사령부의 조력으로 군사전략적인 계획과 군사작전의 수행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 최고지휘관으로서 히틀러의 중요성은 1941년 말에 모스크바 전투의 패배를 빌미로 그가 육군의 직접적인 통수권도 인수함으로써 더욱 커졌다.

21) 군인으로서 “충실”할 대상의 차이가 비교된다. 1919년 8월 14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국가방위군 맹세는 “공화국헌법에 충실”할 것과 “국가와 그 합법적 기구들”을 지키며 “국가수반과 상관”에 대한 복종을, 1933년 12월 2일의 국가방위군 맹세는 “민족과 조국에 충실”할 것을 맹세한다.

히틀러는 군사적 지휘관으로서 과도한 장악을 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결국 국방군최고사령부는 이러한 결함을 상쇄하지 못한 채 상급 지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육군, 해군, 공군의 최고사령관들이 히틀러를 통해 명령을 받았고 그에게 직접 접촉함으로써 국방군최고사령부를 따돌릴 수 있었다. 최고 수준에서의 군사적 계획과 지휘는 괴링(Hermann Göring)이 이끄는 공군최고사령부의 특별지위를 통해 더욱 어려워졌다.²²⁾ (참조: 국방군 구조 도표)²³⁾



국방군 구조(지휘체계)

엄청난 결함이 내재된 군 수뇌부 구성은 사실상 히틀러가 원

22) Martin Broszat, *Der Staat Hitlers*, 김학이 역, 『히틀러 국가』 (문화과지성사, 2015²⁾), pp. 409-410.

23) Die Führung der Wehrmacht. Militärische Spitzengliederung im Krieg, https://www.bpb.de/medien/205482/05_wehrmacht.pdf (검색일: 2023년 4월 1일).

했던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모든 중요한 문제에서 결정적인 권위자로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는 국방군 가운데서 경쟁을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지배를 확고히 했다. 그러나 히틀러 지배체제의 특징으로서 ‘다두 지배구조’(Polykratie)²⁴⁾ 아래 각 군과 수장들의 대립적인 이해는 부차적으로 공동의 전쟁수행을 방해했다. 지휘조직의 분열로 인해 가장 심각한 충격을 받은 것은 지상전의 수행이었다. 육군최고사령부 내의 관할 참모부는 이미 1938년에 국방군최고사령부가 설치되면서 정책자문의 최상급 주무기구로서의 우월성을 상실했다. 이러한 경쟁은 1940년부터 국방군최고사령부와 육군최고사령부 사이에 교전지역의 수가 분할되고 증가하는 결과를 야기했다. 1941년 여름부터 육군최고사령부의 참모부는 중심 교전지역이었던 동부전선만을 관할한다. 이 기구는 직속상관인 히틀러의 휘하에서 1942년부터 더욱더 순수 집행기구로 격하되었다.²⁵⁾

지휘부에서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전쟁 첫 해의 출정에서 독일은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것은 무엇보다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연마한 고도의 훈련수준과 부대 지휘관 및 참모들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었다. 독일 군대에서 전통적이었던 ‘위탁의

24) Rüdiger Hachtmann, “Polykratie - Ein Schlüssel zur Analyse der NS Herrschaftsstruktur?,” *Zentrums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Potsdam* (Jun, 2018), pp. 4-5; 히틀러의 ‘다두 지배구조’ 개념은 브로샤트의 『히틀러 국가』(1969)에 의해 널리 알려졌지만 나치의 위협아래 1933년에 영국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망명한 노이만이 이미 제3제국 시기 동안의 특징을 이 개념(“병존하는 다수의 독립적 기구들”)으로 나치 체제를 분석했다. Alfons Söllner, Michael Wildt, ed., *Franz Neumann, Behemoth. Struktur und Praxis des Nationalsozialismus 1933-1944* (Hamburg, 2018), p. 71 참조. 노이만의 책, 영어(*Behemoth: The Structure and Practice of National Socialism 1933-1944*) 초판은 1942/44에, 독일어(*Behemoth. Struktur und Praxis des Nationalsozialismus 1933-1944*) 초역은 1977년에 출간됨. Broszat, *Der Staat Hitlers*, pp. 407-410 참조.

25)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p. 5.

지휘' 문화가 지상전을 특별히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했다. '위탁전략'(Auftragstaktik)이란 목표를 제시하지만 방법의 선택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가 허용되는 군사적 지휘기술이다.²⁶⁾ 그러나 전쟁기간이 장기화되자 이 요소들의 유효성은 감소되었다. 잘 훈련받지 못했고 별로 쓸모 있지 않았던, 더욱이 불충분한 수로 투입된 보충군이 고갈된 고참들을 대체해야 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히틀러의 완강한 사수명령으로 독일군의 전투지휘는 그 유동성을 상실했고 많은 손실이 뒤따랐다.²⁷⁾

3. 군부 저항의 시작

군대가 나치의 권력 장악을 대부분 환영했다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민족혁명'의 승리로 보였다. 국가방위군 장교들의 의식은 이미 1933년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었던 1918년의 소실점에 고착되어 있었다. 패전의 악몽은 '재무장'에 대한 기대를 통해서야 극복될 것이었다. 나치 정권은 이들의 기대를 적극적으로 만족시켜주었다.²⁸⁾ 군대는 히틀러의 군비정책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보았고 그의 공격적 대외정책에 수년 동안 기꺼운 동반자였다. 지휘관들은 일찍이 나

26) Christian Bühlmann, Peter Braun, "Auftragstaktik in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 *Military Power Revue der Schweizer Armee*, Nr. 1 (2010), pp. 54-55.

27)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p. 6.

28) Holger Löttel, "Der militärische Widerstand gegen Hitler im Lichte neuerer Kontroversen," Tagungsberichte (Bonn, 2008.2.22 - 2008.2.24) p. 2, <http://hsozkult.geschichte.hu-berlin.de/index.asp?id=2042&view=pdf&pn=tagungsberichte&type=tagungsberichte> (검색일: 2023년 4월 1일).

치 이념을 병사들에게 개방했다. 국방부장관은 1934년 초에 인종주의적 ‘아리안 조항’(Arier-Paragraph)을 직업군인에게도 적용했다. 1935년의 병역법은 모든 ‘비아리안족’을 현역 군복무에서 배제했다.²⁹⁾ 전쟁 중에 나치즘은 국방군에서 더욱 강력한 기반을 확보했다. 1940년까지 계속된 눈부신 승리는 국민과 정권과 군대 사이의 일치를 가져다주었다. 군대는 “갈색 홍수”를 견뎌내게 해 줄 “회색 바위”(grauer Fels in brauner Flut)가 아니었다.³⁰⁾

나치즘에 대한 이러한 군대의 입장은 1944년 7월 20일 저항의 공모자들에게도 해당되었다. 거사의 계획과 준비와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슈타우펜베르크도 처음에는 나치 정권의 뚜렷한 반대자가 아니었다. 그도 나치즘의 몇 가지 기본 이념과 총통이나 민족공동체 사상에 찬동했다.³¹⁾ 공모자들이 처음부터 저항투쟁가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전후의 역사학 연구 및 저항에 대한 기억문화에서 걸림돌로 작용한다. 종전 직후 독일 사회에서도 꽤 오랫동안 모반자요 배신자로 인식되었던 이들은 나치 과거사 극복의 더딘 과정과 함께 서서히 긍정적인 인상을 획득하기 시작했고 제3제국과 ‘다른’ 연방공화국의 본보기와 영웅으로서 각인되어 갔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이후로 보다 비판적인 역사연구들에 의해 7월 20일 저항의 상대화와 ‘탈신화화’가 대두된다. 공모자들이 처음에 나치를 환영했다는 점과, 전복 이후의 대안으로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권위주의적 국가 및 패권정치적인 대외정책을 추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³²⁾ 이

29) Vogel,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z,” p. 7.

30) Jürgen Förster, “Die Wehrmacht im NS-Staat, Ein »grauer Fels in brauner Flut«,” Manuel Becker, ed., *Der militärische Widerstand gegen Hitler im Lichte neuer Kontroversen* (Berlin, 2010), pp. 263-276 참조.

31)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59.

32) 7월 20일 저항의 비판적 연구는 1960년대 후반에 두 연구자에 의해 주도되었다.

들은 그들 시대의 자녀요 포로였다.

베르사유 조약의 수정을 주장해왔던 히틀러는 베르사유체제의 ‘용병’으로서 국가방위군을 거부하고 나치의 가두시위 부대였던 돌격대(SA)를 새로운 ‘국민군’의 핵심으로 만들려는 생각이었다. 그가 국가방위군의 젊은 장교들에 대해 재고하게 된 것은 1930년 이후 보수적인 집단 및 중공업 세력과 더욱 가까워지면서부터였다.³³⁾ 국가방위군에서 개편된 국방군의 핵심을 이루는 육군 지도부는 나치 국가의 구조 안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돌격대와 무장친위대(SS)의 야망을 제압하려 했다. 여기서 비롯되는 마찰은 도덕적, 사회적 정의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세력정책적인 권력 경쟁의 양상이라고 할 것이다. 군대 내에서의 첫 이견과 반대는 아직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없었다.

나치 기구들의 ‘비정상적인 성장’과 첫 범죄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거리를 둔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Hermann Graml, “Die außenpolitischen Vorstellungen des deutschen Widerstandes,” W. Schmitthener, H. Buchheim, eds., *Der deutsche Widerstand gegen Hitler. Vier historisch-kritische Studien* (Köln, 1966), pp. 15-72; Hans Mommsen, “Gesellschaftsbild und Verfassungspläne,” *Der deutsche Widerstand gegen Hitler. Vier historisch-kritische Studien*, pp. 73-168. Graml과 Mommsen의 두 논문은 같은 논문집에 실렸다. 전후 독일사회에서 1944년 7월 20일 저항에 대한 인식 및 연구의 변화에 대해서는 Haus der Geschichte Baden-Württemberg, ed., *Verräter? Vorbilder? Verbrecher? Kontroverse Deutungen des 20. Juli 1944 seit 1945* (Berlin, 2016); 이병철, “제3제국과 ‘다른 독일’: 나치 저항의 기억문화 —1944년 7월 20일 전복 기도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Vol. 49 (Fed. 2022), pp. 51-92;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이병철, “전후 독일에서 나치 저항의 인식 변화: 레머 재판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Vol. 52 (Fed. 2023), pp. 105-146 참조.

33)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p. 29.

반향은 아주 미약했다. 1938년 초의 ‘블롬베르크-프리치-사건’(Blomberg-Fritsch-Affäre)에서 나타난 여러 고위 장교들의 비판적 자세는 기존의 국방군 및 육군 지도부에 대한 나치의 음모를 거부한 것이었다. 히틀러는 공격적이며 갈등을 야기하는 대외정책, 곧 자신이 요구하던 전쟁준비에 반대하는 전쟁부장관 블롬베르크(Werner von Blomberg) 원수와 육군최고사령관 프리치(Werner von Fritsch) 대장을 해임하고 국방군최고사령부를 신설하여 자신에게 충성하는 카이텔(Wilhelm Keitel)을 임명한다.³⁴⁾ 이 시기에 나치의 정책, 즉 독재자의 범죄적인 목표를 인식하고 그것과 단절하고자 한 소수의 장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1937년 11월 5일 히틀러는 국방군의 중요 대표자들—전쟁부장관, 육·해·공군최고사령관—과 외무부장관을 불러 국방경제의 문제를 논의했다. 여기서 중점은 소련과 영국과 프랑스에 대한 전쟁계획이었다. 뒤이은 ‘블롬베르크-프리치-사건’은 이에 대해 반대했던 전쟁부장관과 육군최고사령관을 해임한 히틀러의 이른바 숙군 작업이었다. 이 회의 내용이 동석했던 히틀러의 국방군 부관 호스바흐(Friedrich Hoßbach) 대령에 의해 회의록 형식을 취한 비공식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육군참모부의 수장인 베크 대장에게도 알려졌다. 베크는 ‘호스바흐 문서’(Hoßbach-Niederschrift)³⁵⁾에 큰 충격을 받고 서

34) Broszat, *Der Staat Hitlers*, pp. 407-410.

35) 4시간이 넘는 이 회의에서 히틀러는 독일의 ‘공간부족’에 대처하는 것을 독일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독일의 자립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독일 국민경제가 대외교역에 의존되는 상황에서 독일 영토의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볼셰비즘에 대항하고 마찬가지로 ‘철천지원수’인 영국과 프랑스에 대해서도 무장하고 대항하는 전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이 자리에서 제시되었다. “Niederschrift über die Besprechung in der Reichskanzlei am 5. 11. 1937 von 16.15-20.30 [‘Hoßbach-Protokoll’], 10. November 1937”, https://www.1000dokumente.de/pdf/dok_0008_hos_de.pdf (검색일: 2023년

방과의 전쟁을 감행하려는 히틀러의 무책임함에 경악했다. 이후에 작성된 문서에서 베크는 전쟁과 평화의 여부가 히틀러 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을 비판하고 논의 과정에 군대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³⁶⁾

더 나아가서 베크는 이에 대한 장군들의 공동 대처로서 히틀러가 계속 전쟁을 밀고나갈 경우 장군 전원이 사퇴할 것을 제안했다. 1938년 8월 4일의 회의에서 12명의 군단장 모두가 이 시점에 여러 나라를 상대하는 확전이 파국을 야기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 모임이 히틀러에게 알려지면서 베크는 해임된다.³⁷⁾ 베크의 목표는 ‘독일의 종말’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치 정권의 범죄적 질주를 제어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제3제국에 대한 이견의 결집을 육군의 범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다. 베크의 접촉 범위는 이미 나치 정권에 대항하는 저항모임을 이끌고 있는 전임 라이프치히 시장 괴르델러(Carl Friedrich Goerdeler), 경제부장관 샤흐트(Hjalmar Schacht), 군 해외정보부(Abwehr)장 카나리스(Wilhelm Canaris) 해군 대장, 역시 해외정보부의 오스터(Hans Oster) 중령에 이르렀다.³⁸⁾ 군대를 중심으로 한

4월 1일). 7쪽 분량의 타자본으로 기록된 ‘호스바흐 문서’는 2차대전의 전사(前史)를 알려주는 중심 사료로서 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침략 전쟁을 준비했다는 증거로 검사 측에 활용되었다.

36) Joachim Fest, *Staatsstreich. Der lange Weg zum 20. Juli* (Berlin, 1994), p. 62.

37) 같은 책, pp. 86-87. 체코슬로바키아의 침공이 불가피하게 서방세력과의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견에 반대한 두 명 가운데 한 명(라이헤나우, Walter von Reichenau)이 히틀러에게 이 모임에 대해 보고했고, 히틀러는 ‘블롬베르크-프리트치-사건’ 당시 한 장관에게 베크가 “뭔가를 감행할 수 있는 자”로서 자신이 우려하는 유일한 장교라고 토로했다고 한다. Kurt Sendtner, “Die deutsche Militäropposition im ersten Kriegsjahr,” *Europäische Publikation e. V. ed., Vollmacht des Gewissens*, Band 1 (Berlin, 1960), p. 441 참조.

38)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6.

저항운동의 조직화가 시작된 것이다.

1938년 9월에 주데텐란트(Sudetenland)를 에워싼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자 베크의 후임자 할더(Franz Halder) 대장은 4월에 임명된 외무부 차관 바이체커(Ernst Freiherr von Weizsäcker), 베를린 관구의 지휘관 비츨레벤(Erwin von Witzleben) 대장, 군사참모부의 병참부장 슈틸프나겔(Carl-Heinrich von Stülpnagel) 대장, 또한 해군 대장 카나리스와 오스터 중령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되는 ‘대 전쟁’을 막기 위한 쿠데타를 계획한다. 할더는 히틀러가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그를 독일 대외정책의 파탄자로 폭로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기를 원했다.³⁹⁾

그리하여 1938년 여름과 9월에 여러 계층의 모임들과 개인들, 특히 해외정보부에 소속된 인물들이 히틀러에 대한 쿠데타로서 ‘9월 음모’(Septemberverschwörung)를 계획한다. 계획의 수립에 오스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베크와 할더가 접촉한 인물들이 이에 참여했다. 공모자들은 1938년에 주데텐 위기 동안에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위협을 히틀러의 제거로써 저지하려는 데 일치했다. 그러나 히틀러를 체포할지 암살할지에 대해서는 미결의 상태로 보류되었다. 쿠데타 계획에 따르면 주데텐 위기가 정점에 이르는 1938년 9월 28일에 기습부대가 총통관저에 침입하여 히틀러를 체포하고 이후에 법정에 세우기 위해 안전장소로 옮기는 것이었다. 이 잠정적 결정은 9월 20일에 열린 핵심 공모자들의 마지막 회의에서 히틀러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내포하므로 총통관저에서 접전을 연출하여 총살할 것으로 변경된다.⁴⁰⁾

39) 같은 논문, p. 17.

40) Fest, *Staatsstreich. Der lange Weg zum 20. Juli*, p. 94.

그러나 ‘9월 음모’의 공모자들은 영국 정부와의 접촉에서 체임벌린(Neville Chamberlain) 내각에 독일에서 저항을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는 데 실패했다. 런던은 불확실한 독일의 저항세력과 손을 잡는 대신 주테텐 지역을 제3제국에 양도함으로써 히틀러에 의해 선동된 전쟁위협을 제지하는 방법이 더 안전하다고 확신했다.⁴¹⁾ 그리고 1938년 9월 28일에 히틀러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의 수반들과 주테텐 문제의 평화적인 협정에 동의한다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체임벌린은 9월 29일에 히틀러와 정치적인 조율에 합의한다. 뮌헨협정이 체결되었고, 히틀러가 졸지에 평화의 수호자로 대두되었다. 히틀러의 군사적인 모험주의를 그의 해임과 제거를 위한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랐던 공모자들은 히틀러 정권을 전복할 구실이 더 이상 없음을 알게 된다. “체임벌린이 히틀러를 구했다”고 비통함에 젖어 그들은 서방의 유화정책을 비평할 뿐이었다.⁴²⁾

공모자들 사이에 저항의 동기와 정치적 목표는 편차가 있었다. 할더에게 쿠데타는 전쟁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오스터는 이미 히틀러의 전쟁정책이 나치 체제를 전복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다. 해외정보부에는 나치 국가의 범죄적 특성에 격분하여 쿠데타 발발 시 히틀러를 즉각 살해하려는 장교들이 있었다. 그러나 뮌헨 협정으로 히틀러가 논란의 여지없는 대외정책적 성공을 거두자 군부의 저항은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상태에서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 국민의 다수를 히틀러에 대항하도록 동원하는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 분명했다. 히틀러가 여세를 몰아 1938년 11월 9/10일

41)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7.

42) Ian Kershaw, *Hitler. 1936-1945*, 이희재 역, 『히틀러 II - 몰락 1936~1945』 (교양인, 2010), p. 180.

에 일으킨 대대적인 유대인 박해도, 1939년 3월 15일 뮌헨 협정을 위반하고 감행한 체코의 군사적 점령도 새로운 쿠데타를 시도하기에 심리적으로 유리한 기점으로 보이지 않았다.⁴³⁾

공모자들은 9월 총격에서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다. 소수의 핵심 인물들만이 계속 결속되었지만 그러한 기도를 반복할 조직적인 힘을 갖추지는 못했다. 암살을 넘어 총체적인 국가전복 구상으로서 1944년 7월 20일 저항을 위한 계획에 이르게 되는 것은 1943년 가을에 비로소 슈타우펜베르크에 의해서였다. 슈타우펜베르크 자신은 ‘9월 음모’에 관련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저항운동에 합류하게 되는 중요한 연결고리의 시작은 1938년 9월의 공모자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 슈타우펜베르크는 1943년 9월부터 국방군 최고사령부의 올브리히트 중장 휘하에 있게 되었고 이 두 장교는 1944년 7월 20일 저항의 핵심인물로서 그 밤에 최초로 처형된 5인에 속한다. 오스터와 친구였던 올브리히트는 1938년에 베크 대장 중심의 저항운동에 연결된다.⁴⁴⁾ 그리하여 베크와 오스터와 올브리히트와 슈타우펜베르크라는 핵심인물을 통해 1938년 9월과 1944년 7월 20일의 두 저항은 연속성을 갖는다. ‘9월 음모’의 공모자 23명 가운데 18명이 ‘7월 20일’에 참여했다. 그 23명 가운데 11명이 군인이었다. 두 저항은 특히 군부 저항으로서 연속성을 가졌다.

1944년 9월에야 게슈타포는 7월 20일 암살의 수사 중에 해외정보부의 한 사무실에서 발견된 서류들을 통해 1938년 9월의 전복계획과 공모자들에 대해 알아차리게 된다. 1944년 10월에 이 사실을 알게 된 히틀러는 이에 대한 절대적인 비

43)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7.

44)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p. 21-22, 56-63.

밀유지를 명령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것을 금했다. 전선에서 군사적 위기를 겪으며 히틀러 암살미수가 터진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차적으로 전쟁 전의 음모까지 알게 될 경우 더 불안한 시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⁴⁵⁾

국방군과 나치즘 사이에는 처음부터 ‘엘리트 동맹’으로서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군대 안에 히틀러에 대한 반대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나치의 기구들과 국방군, 그리고 국방군 안에서 육군의 위치 등 조직 간의 갈등으로 인한 세력경쟁의 양상으로 시작된 미세한 반대의 기류는 점차 체제의 범죄들에 직면하고 특히 히틀러가 군대를 제치고 피하는 무모한 전쟁계획과 부딪치면서 점차 도덕적이며 사회적인 정의에 입각한 저항으로 심화되어 갔다. 무엇보다 군부의 저항은 전쟁 전에 조직화되고 구체적인 쿠데타의 계획에까지 이르렀다.

4. 1944년 7월 20일 저항

1939년 여름에 히틀러에 의해 폴란드에 대한 전쟁 위협이 고조되었지만 이것을 저항의 기회로 이용하기에는 1938년의 경험들에 비춰볼 때 무리한 것이 분명했다. 단지 심각한 군사적 패배를 통해 히틀러의 특권이 상실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하여 군부 내 반대자들에게 전쟁발발은 더 이상 전복의 시도를 위한 직접적인 계기로 보이지 않았다. 파국적 종말을 야기할 전쟁을 막기 위해 쿠데타를 계획했었지만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45) Susanne Meinl, *Nationalsozialisten gegen Hitler. Die nationalrevolutionäre Opposition um Friedrich Wilhelm Heinz* (Berlin, 2000), p. 326 참조.

그것은 오히려 그 기도의 정당성을 흔들 것이었다.

전쟁 발발 후에 장교들의 반대의 가능성은 극도로 제한되었다. 이제 승리를 위해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애국적인 의무로 보였다. 그러나 히틀러가 폴란드 침공 후에 프랑스에 대한 신속한 공격을 계획하고 어떤 군사적 모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자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서부에서는 아직 전쟁을 방어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가 군사적인 근거로서 더 확실했으므로 프랑스와 중립국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대한 공격은 군부 반대파에게 그것의 거부와 더불어 전복을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단초가 되었다.⁴⁶⁾

1939년 10월 중반부터 해외정보부와 육군최고사령부 사이의 연락책을 맡았던 그로스쿠르트(Helmuth Groscurth) 중령과, 육군참모장 할더와 외무부 차관 바이체커 사이의 연락원 에츠도르프(Hasso von Etdorf) 공사관 참사관을 포함하여 할더 중심으로 결집된 저항모임이 형성된다. 이들의 계획은 히틀러가 서부 공세를 위한 공격명령을 내리자마자 쿠데타를 일으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서부의 부대지휘관들에게서 협력을 얻어야 했다. 1939년 10월 19일의 쿠데타 계획의 실행을 위해 기획된 ‘위협적인 재앙에 대한’ 각서는 통례적인 “군부 지도부의 주장이나 논증이나 항의 또는 사직의 선언만으로는 (· · ·) 교정도 양보도 야기하지” 못할 것이므로 히틀러를 “적시에” 전복할 것을 촉구했다.⁴⁷⁾ 할더는 1938년의

46)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8.

47) 1939년 10월의 쿠데타 계획은 전후에 공개된 그로스쿠르트의 일기를 통해 알려졌다. 그는 1943년 4월에 소련의 포로수용소에서 사망했다. Helmut Krausnick, Harold C. Deutsch, eds., *Helmuth Groscurth, Tagebücher eines Abwehroffiziers 1938-1940: Mit weiteren Dokumenten zur Militäropposition gegen Hitler* (Stuttgart, 1970), p. 219.

계획을 복원하고 보완하게 했다.

히틀러가 여러 번 일정을 연기한 후 11월 12일에 서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자 할더는 11월 5일을 독재자를 공격으로부터 단념하게 하려는 마지막 시도의 적시로 보았다. 작전수행의 준비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이전에 쿠데타를 개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히틀러가 육군최고사령관 브라우히치(Walther von Brauchitsch) 원수를 불러 육군최고사령부에 만연한 ‘패배주의적 사기’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퍼붓고 그것을 근절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할더는 이 계획이 누설되었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즉시 모든 문서를 파기하고 저항계획을 중지하게 했다.⁴⁸⁾

서부 전선의 공격개시일은 1940년 초까지 여러 번 반복되었다. 그 이후로 할더는 쿠데타 구상으로부터 멀어졌다. 1939년 11월의 저항 계획에서 개진되었던, 다수의 장교들이 계속해서 히틀러를 견고히 지지하고 있다는 추정은 경솔하게 무시될 수 없었다. 이후에 여러 사령관들은 1939/40년에 히틀러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났을 경우 그들을 따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 있게 설명했다.⁴⁹⁾

군부 안에서 히틀러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킨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의 전쟁계획에 관한 것이었다. 전쟁은 근본적으로 반인륜적이며 또한 현실적인 국제정세에서 무모한 전쟁발발의 경우 ‘독일의 종말’을 야기할 것이다. 그럼에도 반대파 안에서 폴란드 침공에 대한 원칙적인 동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단치히 및 그 회랑과 폴란드 문제는 1919년 베르사유 조약의 경계설정에 의해 생긴 것이므로 그것의 해결은 정당

48) 같은 책, p. 224.

49)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9.

한 것으로 보였다. 할더와 같은 장군들도 동부의 국경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히틀러에 의해 1940년 여름 소련에 대한 침공계획이 군 수뇌부에 알려지고 일 년 뒤 전쟁이 개시되는 과정에서 군부는 승리의 쾌감에 젖어있었다. 소련에 대한 ‘반볼셰비즘 투쟁’은 많은 장교에게 “틀림없는” 적과의 전쟁으로 받아들여졌다.⁵⁰⁾

그러나 점령지역에서 자행되는 범죄 사실들이 인식되면서 여러 장교들 가운데 나치 정권에 대한 반대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 1939년 11월부터 점령 폴란드에서 자행된 무장친위대와 보안국(SD)-특공대의 범죄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육군 행정부의 은폐아래 일어나는 체계적인 범죄와 대량학살이었다. 폴란드에 주둔한 몇몇 부대지휘관들이 보안경찰의 잔학한 행동과 수 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과 폴란드인의 학살을 비난하고 범죄적 폭력행위의 중지를 요구했다.⁵¹⁾

이에 대한 1940년 2월 7일 육군최고사령부의 답변은 그것이 “필요하고 총통에 의해 규정된, 폴란드 국민에 대해 불가피하게 엄격한 조치로 이를 수밖에 없는 민족정책적 과제의 해결”이라는 것이었다. 전임 대장 베크의 부탁으로 전임 장교단의 최고위직이었던 마켄젠(Eberhard von Mackensen) 원수가 보낸 서한이 그러한 불법행위들을 통한 군대의 품위와 명예의 ‘오점’을 지적하였지만 어떤 것도 개선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통해 오스터 대령과 그로스크루트 중령

50) 같은 논문, pp. 18, 20. 히틀러는 지금까지 불가침조약의 당사자였던 소련을 기습한다는 결정을 1940년 7월 31일 그의 별장 베르크호프(Berghof)에서 그 자리에 함께한 카이텔, 요들, 브라우히치, 레더, 할더에게 알렸고, 전쟁은 1941년 6월 22일 개시되었다. Antony Beevor, *Der Zweite Weltkrieg* (München, 2014), p. 156 참조.

51) Gerd R. Ueberschär, *Das Dilemma der deutschen Militäropposition* (Berlin, 1988), pp. 39-40.

주위의 공모자들은 다른 장교들에게 무장친위대의 범죄를 공개하여 혐오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도덕적 양심에 근거한 저항의 입장을 대대적으로 촉구할 기회를 획득한다.⁵²⁾

1939/40년에 나치 정권에 대한 쿠데타의 시도를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내외적 요인들이 있었다. 공모자들 안에서조차 제3제국의 대외적, 세력정책적 노정에 대한 판단에서 편차가 있었다. 반면에 나치의 선전부는 폴란드가 해외의 독일동포들에게 가했다는 잔학행위를 ‘백서’로 출판하여 독일 주민과 국방군 내에서 폴란드에 대한 증오와 거부를 북돋고 있었다.⁵³⁾ 히틀러의 잘못된 전쟁정책에 대한 우려만으로는 이에 대한 단호하고 결연한 반대를 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소련 침공은 히틀러의 명령에 따라 인종주의적 절멸전으로 수행되었다. 중부 및 동부전선에서의 범죄적 만행은 군부 내 반대파가 1944년 7월 20일의 저항운동으로 재결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 육군최고사령부 안에서 제기된 항의는 처음에는 개별적이고 구두적인 수준이었다. 이 항의의 틀 안에서 중부집단군(Heeresgruppe Mitte) 참모부의 참모장교 트레스코프 중령은 계획된 범죄적 전쟁수행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 입장을 발전시켰다. 그는 전쟁 전의 반대자들과 같이 히틀러의 대외정책을 극단적으로 위험한 모험주의로 인식했고 1938년 ‘9월 음모’의 공모자인 비츨레벤과도 접촉했으며 결정적으로 1938년 11월 유대인 박해 이후에 단호한 정권반대자가 되었다.⁵⁴⁾ 그는 소련 침공이 독일의 군사적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파악했고 특히 그 이후의 살해행동에 직면하고 정권의 잔인한 범죄에 국방군이 연루된 것에 대항하는 새로운 저항운동을 중부

52)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19.

53) 같은 논문, p. 20.

54)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62.

집단군 안에 형성한다. 도덕적인 공동책임과 군사정책적인 판단으로 파국을 피하기를 원했던 트레스코프를 중심으로 1941년 가을부터 새로운 쿠데타 계획이 시작되었다. 점령 지역에서의 주민들에 대한 대량학살 행동은 나치 지도부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범한 범위의 장교단에게 알려졌고 이들에 의해 거부되고 있었다.⁵⁵⁾ 트레스코프가 국방군 차원의 저항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된 것은 베를린의 중심인물들과 연결되면서부터였다. 베크와 오스터와 느슨하게 접촉하고 있던 그는 1942년 초 모스크바 전투의 패배 이후 이들과 보다 적극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1943년 1월에 베를린에서 괴르델러와 올브리히트를 만나 전복에 대해 논의하기에 이른다.⁵⁶⁾

오스터와 베크와 연결되어 있던 올브리히트 중장이 육군최고사령부 본부(Allgemeines Heeresamt, AHA)의 수장으로 임명된 뒤에 1940년 5월부터 국방군최고사령부와 육군최고사령부, 그리고 중부집단군 사령부의 히틀러 반대자들 사이에 새로운 협력이 구축된다. 올브리히트의 부서는 국방군의 요직으로서 실제 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대 내외의 여러 저항운동의 결합을 착수할 수 있는 위치였다. 철저한 비밀유지 속에 그는 군대 밖의 대표자들을 포괄하고 군의 중요 지위에 있는 개별적인 반대자들을 히틀러에 대한 저항의 결정적인 단계로 끌어들이었다.⁵⁷⁾ 1943년 2월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는 쿠데타를 위한 기회로 이용되지 못했다. 한편으로는 1943년 1월 전쟁 종결을 위한 카사블랑카 협약에서 독

55) Ueberschär, *Das Dilemma der deutschen Militäropposition*, p. 44.

56) Peter Hoffmann, "Oberst i. G. Henning von Tresckow und die Staatsstreichpläne im Jahr 1943,"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5 Jg., Heft 2 (Apr. 2007), pp. 333-334.

57)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63.

일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 연합국의 전쟁정책에 직면하여 쿠데타가 너무 늦은 것으로 보였고, 다른 한편 나치 지도부가 스탈린그라드의 충격효과를 선전에 이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도 인식해야 했다. 그리하여 스탈린그라드 패배 이후에 베를린과 파리와 동부전선 중부집단군 참모부에서의 저항 중심들을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이 군부 저항의 최우선 목표로 되었다.⁵⁸⁾

1944년 7월 20일의 거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슈타우펜베르크는 1943년 가을에 베를린으로 전출되면서 핵심 인물들과 접촉하게 된다. 올브리히트가 수장으로 있는 육군최고사령부 본부의 참모장으로 있으면서 그 자신도 ‘7월 20일’ 공모자의 중심부에 속하게 된다.⁵⁹⁾ 이 직책은 총통사령부의 작전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요직이었다. 그는 국방군만이 계슈타포와 보안국이 침투할 수 없는 유일한 조직으로서 필요한 권력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슈타우펜베르크가 나치에 반대하기 시작한 것은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였다. 그는 1941년부터 육군최고사령부의 편제과(Organisationsabteilung)에서 복무할 때에 이미 점령 동부지역에서 벌어지는 나치 범죄를 혐오했다. 그리고 1942년 4월과 8월에 대량학살, 유대인학살, 소련 전쟁포로에 대한 범죄에 대해 광범하게 인식하게 된 것이 그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는 히틀러가 제거되어야만 이 범죄들이 끝날 것이라고 확신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다른 장교들도 저항에 동참하도록 정권의 범죄적 성격에 주목하게 하는 데 몰두했다.⁶⁰⁾

1943년 가을에 슈타우펜베르크 중령⁶¹⁾과 트레스코프 대령

58)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22.

59)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59.

60)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p. 22.

이 공모자들과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히틀러에 대한 공격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이들에게 분명한 것이 있었다. 명령과 복종의 원칙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히틀러의 암살과 국가의 전복과 관련하여 지휘관이 명령한다고 복종이 시행될 것인가? 전쟁 5년째로 접어드는 시기에 예비역 장교와 히틀러청소년단(Hitlerjugend, HJ)-세대 출신의 소위가 90%를 차지하는 독일 육군은 명령을 내려도 살아있는 히틀러에 대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핵심 공모자들에게 확실했다. 그리하여 전복은 히틀러를 제거한 뒤 그 사실이 유지되느냐에 달려있었다. 히틀러가 유고한 경우라도 그 사실을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무장친위대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군대는 그들이 손을 쓰기 전에 먼저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모자들은 여기서 제3제국의 ‘다두 지배구조’에 구축된 경쟁을 역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⁶²⁾

결국 1944년 7월 20일에 시행될 거사는 일견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계획으로 보인다. 그것은 국가를 전복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군대 안에 이미 수립되어 있던 계획이었다. ‘발퀴레 작전’(Unternehmen Walküre)은 원래 나치 정권에 대해 일어날 수 있는 봉기를 진압하기 위한 국방군의 계획이었다. 그것이 공모자들에 의해 전복계획으로 기능 전환될 것이었다. 이 계획은 2차대전 초에 시민들이나 전쟁포로들이나 강제수용소 수감자들이 봉기를 일으킬 경우 발생하게 될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구상된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보충군

61) 슈타우펜베르크는 1943년 1월 1일에 중령으로, 1944년 7월 1일에 대령으로 진급했다. Eberhard Zeller, *Oberst Claus Graf Stauffenberg. Ein Lebensbild* (Schöningh, 1994), pp. 298-301 참조.

62)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pp. 30-31.

(Ersatzheer)⁶³의 병력이 베를린과 다른 대도시의 전략상 중요한 지점들을 점령하고 봉기를 진압한다. 암호의 해제에 아돌프 히틀러 자신과 보충군최고사령관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그리하여 그 수행은 두 핵심인물에 달려 있었다. 이 계획은 1941년 12월 동부전선의 겨울 위기 동안에 입안되었고, 신속히 전선에 배치할 보충군과 교육부대 및 항시 휴가 중인 30만 병력이 동원될 것이었다. 한마디로 모든 활용 가능한 부대가 강화된 전투부대로 편성되어 무장하고 몇 시간 내에 공격준비를 갖추는 것이다.⁶⁴

트레스코프와 슈타우펜베르크는 원래의 발퀴레 계획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인식했다. 히틀러만 사라지면 보충군최고사령관이 전권을 합법적으로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발퀴레 작전을 계획된 히틀러 암살에 눈에 띄지 않게 적용하고자 했다. 문제는 히틀러를 보위하는 세력인데 히틀러가 사망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이를 빌미로 이들—무장친위대, 보안국, 게슈타포, 나치당의 중심인물과 소속자들—이 정권을 장악하려고 준동할 것이므로 체포로써 이를 저지한다는 구상이었다. 개조된 계획에 따르면 각 군단에 발효된 발퀴레 명령이 나치당 기구와 무장친위대 기관들을 차단하는 근거로서 작동될 것이다. 무장친위대 가운데 무장 세력이 당에 의해 해체되고 국방군에게 복속된다. 그뿐 아니라 이 비상사태 하에서의 명령에 따라 모든 민간 관청들의 집행권이 각 지역 소속의 국방군 사령관에게 인수된다.⁶⁵

63) 보충군(보충육군, Ersatzheer)은 예비군(Reservearmee)과는 달리 독일 국내 영토 전역을 여러 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각 군관구의 보충군이 신병의 징병과 훈련, 전선 부대로의 병력 보충, 신무기 실험 등을 담당했다.

64) https://de.wikipedia.org/wiki/Unternehmen_Walk%C3%BCre (검색일: 2023년 4월 1일).

65) 같은 글.

1944년 7월 20일의 저항 계획에 의하면 전복의 성공 후 새로 이 구성되는 정부에서 베크 대장이 대통령 직을, 라이프치히 전 임시장 괴르텔러가 수상 직을 맡는다. 그리고 비츨레벤 원수가 국방군최고사령관이 되어 군대를 지휘한다. 그에 의해서 발효될 명령은 이러할 것이었다.

상황:

“I. 총통 아돌프 히틀러가 사망했다.”

적의 상황:

“전선에 문외한인 당 지도부의 비양심적 당파가 이 상황을 이용하여 악전고투하고 있는 전선의 배후를 습격함으로써 사리적인 목적을 위해 권력을 탈취하려고 했다.

임무:

“II. 위협이 극에 달한 순간에 제국정부는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해 군사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동시에 본인에게 국방군에 대한 최고지휘권과 함께 집행권을 위임했다.”

수행:

“III. 이를 위해 나는 명령한다: 나는 행정권과 [· · ·] 동시에 후방 전쟁 영역에서의 최고지휘권을 보충군 사령관자에게 임명한다. [· · ·] 전체 무장친위대는 즉각적으로 군대에 통합된다. [· · ·] 국방군최고사령관, 원수 비츨레벤”⁶⁶⁾

이 구상은 대단히 견고한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프로이센의

66) Heinemann,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p. 31.

계엄령과 1938년 ‘오트 훈련’의 전통 위에 있었다. 단 한 가지 절대적인 조건은 히틀러의 사망이 정말로 확실해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히틀러의 유고 사태가 벌어지고 그것을 당 지도부가 권력 찬탈의 기회로 삼으려는 것을 국방군이 제압한다는 각색이 성공적으로 실행되려면 그 첫째 되는 전제인 히틀러의 죽음이 발생해야 했다. 그러나 거사는 미수에 그쳤다. 1944년 7월 20일 오후 12시 30분, 동프로이센에 위치한 총통사령부의 막사에서 작전회의가 열렸고, 육군최고사령부의 본부 참모장 슈타우펜베르크 대령도 24명의 참석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히틀러 가까이 에 폭약이 들어있는 서류가방을 놓아두고 중요한 전화를 해야 한다는 구실로 12시 37분에 막사를 떠났다. 12시 42분 경 폭발이 일어나자 슈타우펜베르크는 히틀러의 죽음을 확신하고 급히 베를린으로 향했다. 작전대로 총통사령부의 통신차단조치가 시행되었지만 무장친위대 자체의 교신은 통제되지 않은 채로 있었다. 원래의 계획에 따라 히틀러 유고시 발퀴레 작전의 유일한 명령권자가 되는 보충군최고사령관 프롬 대장은 암살 실패의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명령의 서명을 거부하자 공모자들에 의해 구금되고, 그의 동의 없이 발퀴레 작전이 발령되었다. 오후 5시 42분부터 히틀러 암살미수에 대한 라디오 보도가 반복되었다. 오후 10시 30분 경 풀려난 프롬이 공모자들을 체포하게 하고 즉결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했다. 자정 직전에 베크 대장이, 7월 21일 오전 0시 15분에서 0시 30분 사이에 올브리히트 중장, 슈타우펜베르크 대령, 메르츠 대령, 해프텐 중위가 공모자들의 지휘본부로 사용하던 국방군최고사령부 청사가 있는 벤틀러블록에서 총살되었다. 오전 1시 직전에 히틀러가 라디오에서 육성으로 자신의 생존을 확인시키고 암살미수를 발표했다

다.⁶⁷⁾

보충군최고사령관 프롬 대장 자신이 공모자에 속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히틀러의 생존 사실이 확실해지자 체포 가능한 핵심 공모자 5명을 독자적인 판결로 즉각 처형했다. 이 결정은 히틀러를 격노케 했지만, 이로써 게슈타포를 통해 고문 하에 치러질 심문으로부터 이들을 구해낸 셈이 되었다. 그리하여 다른 공모자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즉각적으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었다. 프롬은 9월 14일에 해임되었고, 민간인으로서 ‘민족법정’에서 ‘7월 20일’ 관련 재판을 받았지만 그의 공모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되었다.⁶⁸⁾ 트레스코프 준장은 7월 21일에 중부전선 북무지에서 자결했고 오스터 준장, 비츨레벤 원수, 괴르텔러 등 공모자 대다수가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 사이에 목숨을 잃었다.

1944년 7월 20일 발퀴레 작전을 통해 히틀러를 전복하고자 한 군부 내 반대의 동기는 다양했고 전적으로 일관되지는 않았다. 공모에 참여한 자들의 세계관적 확신은 광범한 사상과 개념을 포함했다. 공모자들 가운데는 1933년에 이미 나치 독재에 대해 신랄하게 반대를 표명한 자도 있었다. 많은 장교들에게 군사전문적인 문제는 대단히 중요했다. 히틀러는 작전

67) Thomas Vogel,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Bun 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5), pp. 14–19. 포겔은 1944년 7월 20일 거사의 실행과 좌초의 과정을 1944년 7월 20일 오전 7시부터 21일 오전 1시경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시간별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https://www.bpb.de/themen/nationalsozialismus-zweiter-weltkrieg/der-zweite-weltkrieg/199412/widerstand-gegen-den-nationalsozialismus> (검색일: 2023년 4월 1일); Heinrich Walle, “Der 20. Juli 1944. Eine Chronik der Ereignisse von Attentat und Umsturzversuch,” Militärgeschichtliches Forschungsamt, ed., *Aufstand des Gewissens. Der militärische Widerstand gegen Hitler und das NS-Regime 1933-1945* (Hamburg, 2000⁵), pp. 575–598 참조.

68) https://de.wikipedia.org/wiki/Friedrich_Fromm (검색일: 2023년 4월 1일).

상 잘못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다. 슈타우펜베르크의 부관이었던 클라우징(Friedrich Karl Klausning) 대위는 1944년 8월의 심문에서 “정황을 솔직하게 설명했던 장교들은 파면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독일 국방군 지도부에서의 변화를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⁶⁹⁾ 다수의 저항투사들이 나치의 폭력행위에 경악해서, 특히 유대인의 대량 총살을 목격한 뒤에 그러한 범죄를 종식시키기 위해 어떠한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치적, 군사전문적, 윤리적·도덕적 동기들이 복합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도덕성은 ‘군사’적으로나 독일사의 관점에서 장기지속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선 정치적 독재의 반대나 군사적으로 잘못된 전쟁의 반대 모두 나치 정권의 도덕적 정당성 문제로 귀결된다. 또한 전후의 재건에서 제3제국과 ‘다른 독일’로 새 출발을 하기 위한 기반으로 저항이 갖는 의미도 도덕성에 있었다. 슈타우펜베르크는 1944년 7월 20일 직전에 자신이 감행하는 저항의 동인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 뭔가 행해져야 할 때다. 물론 무엇인가를 감행하는 자는 그가 독일 역사에 배신자로 몰릴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행동을 단념한다면 그는 그의 양심의 배신자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무의미한 인간희생을 저지하지 않으면 나는 전몰자들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할 것이다.”⁷⁰⁾ 전해지는 트레스코프의 말도 도덕적 양심의 차원을 강조한다: “하나님이 10명의 의인

69) Tuchel, Albert,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p. 57.

70) 슈타우펜베르크는 이 말을 1944년 7월 20일 직전에 밤베르크의 연대 동료인 페츨트(Bernd von Pezold)의 부인에게 남겼다. Joachim Kramarz, *Claus Graf Stauffenberg. 15. November 1907 - 20. Juli 1944. Das Leben eines Offiziers* (Frankfurt a.M., 1965), pp. 132, 201 참조.

만 있으면 소동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듯이 나는 독일도 우리로 인하여 절멸하지 않으시기를 소망한다.” 1944년 7월 20일 전복의 성공 시에 발표될 ‘정부성명서’는 23면의 분량에 12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첫 과제는 법의 완전한 존엄성의 회복이다.”로 시작하며, “2. 우리는 공적인, 사적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도덕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 · ·) 가장 비인간적이며 무자비한, 너무도 수치스럽고 전혀 복구될 수 없는 형태로 벌어진 유대인 박해는 즉시 중단된다.”로 이어진다.⁷¹⁾ 도덕적 동기는 1944년 7월 20일 저항의 핵심에 속했다.

5. 맺음말

1944년 7월 20일의 히틀러 암살 및 나치 정권의 전복 시도는 제3제국 시기 동안 그 규모와 의미와 파장력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저항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공모자들의 구성과 역할에서 군인들이 주도한 군부의 저항, 정확히 말하면 군부 안에서의 저항이었다. 히틀러와 나치의 선전은 이 사건을 극소수의 일당에 의한 음모였다고 축소시키려 했지만 오랫동안 요직의 군인들 다수와 민간인 저항운동이 함께 준비해온 거사였다.

군대 안에 저항의 뿌리가 이른 시기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그것은 히틀러의 ‘다두 지배구조’ 안에서 군대와 나치 기구 사이에, 그리고 군대 안에서도 국방군과 육군 사이에 전개된

71) 베크와 괴르텔러의 ‘정부성명서’ 초안은 분실되었고 게슈타포 내 ‘1944년 7월 20일 암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문서가 ‘독일저항기념관’(Gedenkstätte Deutscher Widerstand)에 의해 공개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https://www.gdw-berlin.de/fileadmin/bilder/publikationen/begleitmaterialien/Faksimiles_PDFs_deutsch/FS_10.1_DE_2.Aufl-RZ-web.pdf (검색일: 2023년 4월 1일).

세력경쟁의 양상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미세했던 반대의 흐름은 전쟁의 계획과 수행이 군사적인 무모함과 오류에 의해 준비되고 집행됨에 따라 정권의 전복까지 목적으로 하는 조직화된 저항으로 발전한다. 군사전문적인 차원의 반대가 독일의 미래를 위한, 즉 제3제국과 ‘다른 독일’을 세우기 위한 역사적인 의미로 승화되는 것은 나치의 체계적인 범죄에 직면하면서 대두되는 도덕적인 저항에 의해서였다. 히틀러의 절멸전에 의해 전선에서 자행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일차적인 목격자는 군인이었고 이들이 그에 대한 저항의 기수가 된다.

국가적인 차원의 범죄를 저지하고 도덕적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군부 안에서의 저항은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시대에 역사적 의미로서 작용했다. 그것은 당대의 사건으로서 그치지 않았다. 독일의 새 출발에 전적으로 필요한 재건의 기반과 정체성 함양을 위한 본보기로서 ‘7월 20일’의 정신은 전후 독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논쟁되고 재발견되고 있다. 그것은 특히 국방군에서 연방군으로 개혁되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냉전기 서유럽방위공동체의 맥락에서 창설된 서독 연방군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인정받아야 했고 제3제국의 독재에 맞선 군부 저항과의 관련성으로써 그것을 입증해야 했다. 매년 7월 20일, 당시의 공모자들이 처형되었던 현장인 벵들러블록에서 연방군의 신병들이 충성서약을 하는 것은 오늘날 상징적인 관례로 자리 잡았다.⁷²⁾ 1944년 7월 20일 저항은 독일 현대사에서 역사적

72) 전후의 서독 사회에서 국방군 출신 및 연방군의 새 구성원 안에서 7월 20일 저항이 긍정적인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긴 시간 동안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 1959년에야 연방군 총사령관이 저항투사들의 “양심의 봉기”의 전통 위에 연방군이 세워져야 한다고 하달했고, 1999년 새천년 전환기에 국방부장관은 연방군의 본

연속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7월 20일’의 이러한 특성에 의해 이 저항의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발전해왔다. 우선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첫 단계에 이어 최근에는 그것이 전후 독일사회에서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에 집중하여 연구되고 있다.⁷³⁾ 연방군의 설립은 단번에 국방군의 과거에서 벗어나는 급전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렸다. 전후 독일 군대에서의 이 과정을 ‘7월 20일’에 대한 기억문화로서 살피는 작업은 이 논문 다음의 과제가 될 것이다.

질적인 전통으로서 ‘히틀러에 대한 군부의 저항’을 강조했다.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pp. 16, 314, 317.

73) 군부의 저항과 전후 연방군 창설의 연속성 문제에 대해서는 Habbo Knoch, “‘Gewissenlose Führung’ und ‘anständige Landser’: Die Wehrmacht im Wandel bundesrepublikanischer Erinnerungspolitik, Haus der Geschichte Baden-Württemberg, *Verräter? Vorbilder? Verbrecher?*”, pp. 43-71; Alaric Searle, “Die unheilbare Wunde: Der 20. Juli 1944 im kollektiven Gedächtnis der Wehrmachtsgeneralität 1949-1969,” *같은 책*, pp. 97-128; Heinemann,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pp. 303-332 참조.

〈참고문헌〉

1. 국문

- 이병철, “제3제국과 ‘다른 독일’: 나치 저항의 기억문화 —1944년 7월 20일 전복 기도를 중심으로—,” 『독일연구』 Vol. 49 (2022):51-92.
<http://dx.doi.org/10.17995/kjgs.2022.2.49.51>
- _____, “전후 독일에서 나치 저항의 인식 변화: 레머 재판을 중심으로,” 『독일연구』 Vol. 52 (2023):105-146.
<http://dx.doi.org/10.17995/kjgs.2023.2.52.105>
- Broszat, Martin, 김학이 역, 『히틀러 국가』, 문학과지성사, 2015.
- Kershaw, Ian, 이희재 역, 『히틀러 2 - 몰락 1936~1945』, 교양인, 2010.

2. 독문

- Berghahn, Volker R. ed., *Militarismus, Köln*: Kiepenheuer & Witsch, 1975.
- Broszat, Martin, “Zur Sozialgeschichte des deutschen Widerstands,”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34, 1986.
- Bühlmann, C., Braun, P., “Auftragstaktik in Vergangenheit, Gegenwart und Zukunft,” *Military Power Revue der Schweizer Armee*, Nr. 1, 2010.
- Fest, Joachim, *Staatsstreich. Der lange Weg zum 20. Juli*, Berlin: Siedler, 1994.
- Förster, Jürgen, “Die Wehrmacht im NS-Staat, Ein »grauer Fels in brauner Flut«?,” Becker, Manuel, ed., *Der militärische Widerstand gegen Hitler im Lichte neuer Kontroversen*, Berlin: LIT, 2010.

- Gerd R., Ueberschär, “Auf dem Weg zum 20. Juli 1944, Motive und Entwicklung der Militäropposition gegen Hitle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54 Jg., Bd. 27, 2004.
- Hachtmann, Rüdiger, “Polykratie - Ein Schlüssel zur Analyse der NS Herrschaftsstruktur?,” *Zentrums für Zeithistorische Forschung Potsdam*, 2018.
- Haus der Geschichte Baden-Württemberg, ed., *Verräter? Vorbilder? Verbrecher? Kontroverse Deutungen des 20. Juli 1944 seit 1945*, Berlin: Frank & Timme, 2016.
- Heinemann, Winfried, “Der 20. Juli 1944 als Teil der deutschen Militärgeschichte,” Hillmann, J., Lieb, P., eds., *20. Juli 1944. Neue Forschungen zum Widerstand gegen Hitler*, 2019.
- Heinemann, Winfried, *Unternehmen “Walküre” Eine Militärgeschichte des 20. Juli 1944*, Berlin/Boston: De Gruyter Oldenbourg, 2019.
- Hoffmann, Peter, “Oberst i. G. Henning von Tresckow und die Staatsstreichpläne im Jahr 1943,” *Vierteljahrshefte für Zeitgeschichte* 55 Jg., Heft 2, 2007.
- Krausnick, H., Deutsch, H. C., eds., *Helmuth Groscurth. Tagebücher eines Abwehroffiziers 1938-1940: Mit weiteren Dokumenten zur Militäropposition gegen Hitler*, Stuttgart: Dt. Verl.-Anst., 1970.
- Söllner, A., Wildt, M., ed., *Franz Neumann, Behemoth. Struktur und Praxis des Nationalsozialismus 1933-1944*, Hamburg: Europäische Verlagsanstalt, 2018.
- Tuchel, J., Albert, J.,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 eine Einführung,”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o. 330, 2016.

- Tuchel, Johannes, “Die Verfahren vor dem »Volksgerichtshof«,”
Becker, M., Studt, C. eds., *Der Umgang des Dritten
Reiches mit den Feinden des Regimes*, Berlin, Lit, 2010.
- Ueberschär, Gerd R., *Das Dilemma der deutschen Militäropposi-
tion*, Berlin: Gedenkstätte Dt. Widerstand, 1988.
- Vogel, Thomas, *Die Wehrmacht: Struktur, Entwicklung, Einsat-
z*,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5, h
[https://www.bpb.de/themen/nationalsozialismus-zweiter-
weltkrieg/der-zweite-weltkrieg/199406/die-wehrmacht-
struktur-entwicklung-einsatz/](https://www.bpb.de/themen/nationalsozialismus-zweiter-weltkrieg/der-zweite-weltkrieg/199406/die-wehrmacht-struktur-entwicklung-einsatz/). (검색일: 2023년 4월
1일).
- _____, “Widerstand gegen den Nationalsozialismu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5, [http://
www.bpb.de/geschichte/deutsche-geschichte/der-zweit
e-weltkrieg/199412/widerstand-gegen-den-nationalsozi
alismus](http://www.bpb.de/geschichte/deutsche-geschichte/der-zweite-weltkrieg/199412/widerstand-gegen-den-nationalsozialismus). (검색일: 2023년 4월 1일).

(Abstract)

Resistance within the Military Authorities against the Third Reich

Lee, Byong-Chol

The German military welcomed Hitler gaining control over the regime in 1933. This is because Germany's military, which was crippled due to the Treaty of Versailles, gained the opportunity to become revived by the Nazi's rearmament policy. But Hitler wanted to use the military as a tool for expanding based on its foreign policy. The German military that lost in World War I was transforming into a dangerous threat through the reorganization in the Wehrmacht that could once again push Europe into war. And in response, a small group opposing this began to form within the military. Military opposition first began as a struggle to gain power between the organizations reshuffled within the Third Reich, but it soon developed into a movement that opposed the war policies of Hitler. Even prior to the start of World War II, resistance movements were being organized and reinforced among the opposition who believed they could save Germany from a reckless war by overturning the regime within the military.

As the first major attempt, the 'September Conspiracy' of 1938 within the military authority could not be executed due to the deceptive Munich Agreement that appeared as if Hitler wanted to avoid war. But as the Second World War became a racist war of annihilation, those who had oppositions in the military ranks became morally rearmed and attempted a resistance on July 20, 1944 with the goal of overthrowing the criminal regime and to erect the 'other Germany' different from that of the Third Reich. This plot had a tragic as the assassination of Hitler failed, but it served as the mental basis for Germany's new start following the war, and its historical significance continues even to this day. In particular, the spirit of 'July 20'

is continuing in terms of military history during the course of the Wehrmacht transforming into the Bundeswehr.

Keywords : The Third Reich, Wehrmacht, Nazism, Resistance,
July 20, 1944, Stauffenberg, Operation Valkyrie